

‘월북’ 김 모씨 강화도 접경지로 이동

CCTV통해 확인...배수로서 물안경 든 가방 발견 김씨, 아파트 보증금 등 500여만원 달러로 환전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김모(24)씨와 관련,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김씨는 지난 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성폭력 사건 수사와 수사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철저히 수사해 한편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날 경기도남부청 2부장을 단장으로 보안계와 여성계 소속 30여명의 경찰들로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경찰은 이날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

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민간이 출입이 가능한 인천 강화도 한 접경지역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지난 17일 인천 강화도 교동도로 이동, 다음날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인근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지역 한 배수로에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다.

해당 가방에는 수경(물안경)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과 지인의 승용차를 팔아 500여만 원 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은 480여만 원 가량이 환전됐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전체 금액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는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인이 “김씨가



경찰은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재입북자가 해당 강화도 일대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화도와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km 안팎이다.

탈북하려한다는” 신고를 목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인이 모두 4건의 112 신고를 했었는데, 당시 재입북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차량을 빌려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가 있었다”며 “3건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안내 조치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후 수사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인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김씨로부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날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봉우 기자

해수욕장서 마스크 쓰겠다고 욕한 50대 남성

부산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단속반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모욕 및 감염병예방및관리관련법령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4시3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이동조치를 거부했고, 다수의 여행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 5곳에는 25일부터 8월1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행위,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교통사고 일으켰다” 허위진술 20대 집유

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가 하면 외국에 다녀온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2019년 6월7일 광주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9월5일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서에 출석, 해당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렌터카는 A씨가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돈 안 준다고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딸

자신의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1분까지 안양시 동안구 자신의 카페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목재 흥기 등으로 B씨를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경제적 도움 요청을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카페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집 데려다줄게” 만취여성 차에서 추행

술에 취한 여성을 귀가시켜준다는 차림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추행한 여성을 공갈죄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9일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대리운전으로 귀가시켜준다는 차림에 함께 탑승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다음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A씨는 한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과정에서 한씨에게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를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씨는 이후 합의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A씨를 공갈죄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원 잇달아 검거

직원 신고...보이스피싱 판단 후 잠복해 체포 피해예방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

싱 조직원이 79세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가 도용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겠다고 속이고 현금 2,000만원을 수거하려 온 30대 말레이시아 외국인 1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순천농협 ○○지점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계속 연락토록 하면서 거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만들어 준비토록 하고 피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주민과 함께 4시간 동안 잠복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순천시 관내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61세, 여)로부터 1,290만 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려 한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

이 사건 역시 신한은행 ○○지점 직원의 예리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경찰에 신고하여 송금하려던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여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이 모두 금융기관 직원 및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발 빠른 공조 수사, 그리고 ○○읍의 경우 주민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민관 협력의 3박자가 잘 맞아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